

## 주간 국제금융 주요 이슈 및 전망

안남기 | 종합분석실장(3705-6232)

### 미국 1Q GDP 큰 폭 둔화 예상. 3월 근원 PCE의 추세전환 여부도 관심

- 4.28일 미국 1분기 성장률 속보치 발표. 지난 '21.4분기 +6.9%(qoq연율)로 반등했으나 1분기 코로나19 재확산,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1% 내외로 급락 가능성
  - 다만 둔화 정도에 대한 의견이 상이해 추정범위는 0%에서 1.6%로 크게 벌어져있는 만큼 컨센서스와 다른 서프라이즈 수치가 발표될 가능성에도 유의
- 4.29일에는 연준이 주목하는 미국 3월 근원 PCE 가격지수 발표. 지난 2월 +5.4%(yoy)로 1983.4월 이후 최고로 상승한 가운데 금번 컨센서스는 5.3%로 소폭 하락을 예상하고 있어 추세 전환 여부에 관심
  - PCE 가격지수는 지난 2월 6.4%로 추가 상승한 가운데 금번에도 추가 상승 예상
- 4.29일 4월 미시건대 심리지수 발표. 작년 12월 70.6에서 금년 3월 59.4로 3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으나 금번에는 65 내외로 반등 예상



### 유로존 1Q GDP와 4월 CPI 발표. 한국 1Q GDP도 주목

- 4.29일 유로존 1분기 성장률 예비치 발표. '21.4분기 +0.3% (qoq)로 큰 폭 둔화한 후 금번 경제 재개방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혼재되면서 비슷한 수준이 이어질 가능성
  - 국별로는 독일(4Q -0.3%), 프랑스(4Q +0.7%), 이탈리아 (4Q +0.6%), 스페인(4Q +2.2%) 등에 관심
- 4.29일 유로존 4월 CPI(HICP) 잠정치 발표. 지난 2월 5.9%(yoy)에서 3월 7.4%로 역대 최고를 경신한 가운데 금번 추가로 상승할지 관심. 컨센서스는 7.4%로 비슷한 수준 예상
- 4.26일 한국 1분기 성장률 속보치 발표. 지난 '21.4분기 +1.2%(qoq)로 반등한바 있으나 금번에는 코로나19 확산 영향 등으로 큰 폭 둔화될 가능성



**BOJ 통화정책회의 개최. 경제 및 물가전망치는 하향조정 가능성**

- BOJ는 4.27~28일 회의에서 통화완화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. 다만 10년물 국채금리가 상단(0.25%)을 위협하고 있어 YCC(수익률커브통제) 정책에 대한 코멘트에 관심
- 금번 회의에서 경제전망치도 수정. 지난 1월 FY2022 성장률은 +3.8%, 근월 CPI는 +1.1%로 상향조정했으나 금번에는 코로나19 재확산,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하향조정 가능성



**3개월차로 접어드는 우크라이나 전쟁. UN사무총장·푸틴 회담 결과도 관심**

- 금주 우크라이나 전쟁이 3개월차로 접어드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동부에 이어 러시아의 남부지역 장악을 위한 군사작전 확대 여부에 관심
- 구테레스 UN사무총장은 4.26일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과 회담 예정이며 우크라이나도 방문할 가능성. 미국은 금주 독일에서 우크라이나 미래 국방정책 관련해 20여개국과 회의를 추진



**BIS·BOE·ECB·IMF 합동 연례컨퍼런스 개최. 스웨덴·러시아 통화정책회의 개최**

- BIS·BOE·ECB·IMF 합동 연례컨퍼런스가 4.27~28일 개최. “불완전하고 갈라진 경제회복 속 새로운 글로벌 도전”이라는 주제로 경제환경 변화와 대응정책을 논의
- 스웨덴 중앙은행은 4.28일 통화정책회의에서 팬데믹 이후 유지한 제로금리를 인상할지 결정. 러시아 중앙은행은 4.8일 비정기회의에서 금리를 전격인하(20→17%)한 후 29일 추가 인하할지 관심



**미국·유럽 주요기업 1Q 실적 발표. 북한 창건일 전후 추가도발 가능성**

- 금주 미국 주요 기업(Alphabet, Apple, Amazon, Twitter)과 유로존 은행(HSBC, Credit Suisse, Barclays, DB)의 1분기 실적발표가 예정. 최근 주가 조정에 추가 악재로 작용할지 관심
- 북한은 4.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을 맞이하여 대규모 열병식과 행사들을 준비하는 가운데 ICBM 발사 또는 핵실험 등 추가도발에 나설지 주목

